

광주 주택거래 '뚝'... 암울한 부동산 시장

4월 매매 2377건 전년비 43.9%P·전월세 6.4%P 줄어 59㎡ 8개월새 2천만원 하락... 선호 높은 84㎡는 '보합' 부동산114 "물량 증가·대출 규제 여파 가격 조정 있을 것"

광주를 비롯한 지방의 주택매매와 전월세 거래가 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향후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주의 4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2377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3.9%포인트 하락했으며 2011년부터 5년간 동월 평균보다도 30.5%포인트나 줄었다. 이는 수도권에 4만3452건, 지방이 4만2846건으로 각각 평균 31.8%, 24.5% 하락세를 기록한 것보다도 감소폭이 컸다. 1~4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도 크게 줄

어 이 기간 누계 주택매매 거래량은 838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5.5%포인트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 역시 235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4%포인트 하락했으며 전월보다도 6.0% 줄었다. 다만 최근 5년간 평균보다는 2.3%포인트는 수지다.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총 9769건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0%포인트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사철이 본격화하면서 4월 주택거래량이 3월에 비해 증가했지만 주택거래량이 기록적으로

많았던 작년 대비는 저저효과로 인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최근 3~4년간 주택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으나 올해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한데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등 약세가 타지며 주택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업계는 광주를 비롯한 지방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향후 부동산 경기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5월 들어 가계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 강화되면서 부동산 경기 전망도 어두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3월말 광주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말에 비해 0.04% 하락했다. 마이너스 상승률은 3년8개월만에 처음이다. 전용면적 59㎡의 아파트 경우 지

난해 6월 평균 거래가 1억9180만원이었던 올 2월 1억7000만원대로 하락했다. 120~124㎡ 중대형 면적은 지난해말 3억7000만원대까지 올라갔지만 거래가 끊기면서 1년 전 시세인 3억1000만원대로 되돌아갔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조차도 지난해 8월 2억4000만원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뜨거웠던 광주지역 청약경쟁 열기도 식어가고 있다. 지난 1~4월 광주지역 전체 경쟁률(1~2순위)은 5.76대 1로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 8.81대 1을 밑돌았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지방 아파트 가격은 최근 2~3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이로 인한 가격 상승 부담과 입주 물량 증가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역 中企 한자리에

16~20일 중소기업 주간

동반성장 포럼·기업인대회 등

16일부터 20일까지 제28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적 위상과 관심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1989년부터 매년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정해 중소기업계 공동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2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제28회 광주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와 학계 등 상생방안과 지원정책을 도출한다. 포럼위원과 지원기관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스마트팩토리 사업 설명회와 동반성장 실태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박성수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의 기조강연도 계획돼 있다.

2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시 주최로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린다. 이날 대회에서는 모범기업인, 중소기업육성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또 오는 27일에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유관기관 임·직원의 유대강화를 위해 무등산 일대에서 협동조합 한마음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형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주간행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고 경제활력을 위한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



보해양조주는 지난 12일,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2016 김제동의 공감토크 in 순천'을 개최,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고민을 함께 나눴다. <보해양조 제공>

보해, 호남 청년들에 위로와 희망 메시지

'김제동의 공감토크 in 순천' 개최

보해양조주(대표이사 임지선)가 대학축제 시즌을 맞아 순천과 호남 지역 청년들을 위해 희망과 힐링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보해양조주는 지난 12일,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2016 김제동의 공감토크 in 순천'이 대학생들의 열띤 호응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제동의 공감토크'는 보해양조주의 모델이자 인기 방송인인 김제동이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펼치는 토크 콘서트로, 매 해 객석을 가득 채우며 인기리에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사로 나선 김제동은 호남 지역의 청년들이 연애와 취업난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긍심과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신의 20대 시절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참여한 대학생들의 고민을 공감하고, 촌철살인의 현실적인 해안으로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공감토크에 참여한 대학생들도 김제동의 한 마디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장내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보해양조주 관계자는 "향후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게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이번과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청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로또복권 (제702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당첨금(원)	당첨자수
3 13 16 24 26 29 9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465,091,387	11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8,391,324	46
3 5개 숫자일치	1,476,636	1,819
4 4개 숫자일치	50,000	88,043
5 3개 숫자일치	5,000	1,443,954

두 팔로 자동차를 번쩍~ 한국판 '아이언맨 슈트' 나온다



현대차그룹 '웨어러블 로봇' 공개 1 공장 등 일선현장용 2 미래 무기 체계용 3 장애인 보조용

로봇을 입고 두 팔로 자동차를 번쩍 들어 올리는 한국판 '아이언맨'이 조만간 국내에 등장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영화에서만 보던 일명 '아이언맨 슈트' 웨어러블 로봇을 자체 제작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핵심 계열사 연구 인력을 대거 투입해 웨어러블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자사 블로그를 통해 극비리에 개발 중인 한국판 '아이언맨 슈트'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처럼 몸 전체를 덮는 구조는 아니지만, 안전피넛 매달고 쉽게 착용할 수 있어 현실적인 웨어러블 로봇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차그룹 측은 "우리가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웨어러블 로봇은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라며 "웨어러블 로봇 개발은 '사람과 사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구현하기 위한 현대차그룹 비전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개발 중인 한국판 '아이언맨 슈트'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생산할 방침이다.

공장 등 일선현장용, 미래 무기 체계용, 장애인 보조용이다. 우선 무기

운 물체를 옮겨야 하는 작업장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 허리, 무릎 등에 거의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수십, 수백kg에 달하는 물체를 옮겨야 하는 열차 조립 공정에서 허리, 무릎 등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방용으로도 활용된다. 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 50kg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시속 6km 이상 속도로 평지, 계단, 경사면을 걷고 수직 장애물이나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다. 근력을 20배 늘려주는 유압식 착용 로봇과 간단한 장비로 힘을 8배까지 증강하는 전기식 착용 로봇 등 다양한 종류의 '아이언맨'도 개발 중이다.

아울러 하반신 마비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을 도울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다양한 고객층이 사용할 수 있는 착용형 보행 보조 로봇 'H-LEX'를 최근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성과도 거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HULC', Raytheon사의 'XOS', 일본 Cyberdyne사의 'HAL' 등이 있다.

연합뉴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르
- 맞춤형 출장도식

파죽는 빛
50년 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525-2111 | www.geumsoojang.com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